

12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사흘만에 차익매물 [다우: 8,691.33pt (-2.72%)]	뉴욕증시가 최근 이틀간의 급등 랠리를 접고, 9일(현지시간) 약세로 돌아섰음. 임박한 빅3 지원법안 처리를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 단기적인 상승 랠리에 따른 차익매물이 집중하며 뉴욕증시가 사흘만에 하락 반전.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확대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소위 자동차 빅3에 대한 자금지원이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받아 뉴욕증시는 개장전 2시간 전만 해도 지수 선물이 오름세를 유지했음. 그러나 개장직전 펠덱스의 부진한 이익전망이 부각되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출발, 장중 낙폭을 늘린 끝에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반도체주, 부진한 실적 전망에도 강세 `주목`	칩메이커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는 전일 장마감 직후 이번 분기 매출과 이익 규모가 이전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가는 5%대의 오름세를 보였음. 또 칩메이커인 브로드컴(Broadcom)은 이번 분기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7% 가까이 상승했고, 알테라(Altera)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발표에도 불구하고 5.63% 올랐음. 역시 칩메이커인 내쇼널세미컨덕터 (National Semiconductor)도 2분기 판매가 급락한데다, 이번 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가는 오히려 13% 이상 급등했음.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84%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지수에 비해 적었음.
빅3 지원안 표결 임박.. 지켜보자 신중론 집중	미 의회의 자동차 지원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공화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선 표결처리를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늘어났음. 민주당 해리 리드(Reid) 상원 원내대표는 "빅3 자금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몇시간내로 해결될 것"이라며 "의회는 오늘이나 내일중 지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유가 하락.. `25년래 첫 소비 감소 전망` [WTI: \$42.07 (-\$1.64)]	국제 유가가 글로벌 석유 소비량 감소 전망으로 하락했음. 미국 에너지부는 경기후퇴(recession)로 올해 글로벌 일일 평균 석유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5만배럴 감소한 8,575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음. 이는 지난 1983년 이후 첫 감소임. 에너지부는 또한 내년 WTI 평균 가격을 51.17달러로 예상했고, 이는 지난달 전망치인 63.50달러에서 19% 하향 조정된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소니, 정규직 8천명 등 1만6천명 감원	일본 소니는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오는 2010년 3월까지 전 세계에서 정규직 8천명 등 약 1만6천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소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자업계의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 개선을 서둘러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경기 부양에 최대 313조원 더 쏟아	세계 경제의 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일본이 경기부양 대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15조~20조엔(약 234조~313조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경기부양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또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년간 2조엔(3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용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함.
3분기 GDP수정치 실망.. 상승 발목	9일 일본 증시는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예상치 이하로 위축되면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 이와 함께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 여파로 4분기에는 경기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전날 미국의 신뉴딜 정책 호재로 재미를 본 차익실현 매물이 늘어 상한가를 억누름.
악화된 경제지표 불안감..2.54% 하락 마감	9일 중국증시는 하락 마감. 오는 10일부터 발표되기 시작할 11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불안감 고조와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부동산의 11월 매출 급감 소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
"英 10월 산업생산 1.8% 위축.. 경제 둔화 가속화"FT	영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후풍폭으로 가파른 둔화 추세. 영국 통계청은 10월 산업생산이 전분기대비로 2003년 1월래 최대 폭인 1.8% 둔화됐다고 밝혔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경기침체 탓 中企 워크아웃 급증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악화가 이어지면서 3분기들어 새로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에 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이 60%가까이 급증.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중 국내은행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은 모두 386곳으로 지난 분기(245개사)보다 141개곳이 증가
채권단, 하이닉스 8,000억원 지원 추진	은행권이 하이닉스에 대해 대규모 자금 지원을 추진중. 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하이닉스 주주협의회 소속 주요 은행 5곳은 내년 초 하이닉스에 5,000억원을 신규 대출해주고 3,000억원을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다음 주말 내려질 예정.
SKT, 씨앤앰과 콘텐츠 사업 제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IHQ가 최대주주로 있는 씨유미디어(구 YTN스타)가 씨앤앰과 함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중. 시청률이 높은 연예 관련 채널을 자체 보유하지 못한 씨앤앰의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예 콘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을 확보하게 되며 씨유미디어는 안정적인 송출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됨.
CD금리 열흘만에 하락.. 5.4%대 초반 진입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열흘만에 하락세를 재개.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1bp 내린 5.44%를 기록. CD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10 영업일 처음이며, 이는 채안펀드 조성으로 은행채 등의 매수세가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